

1부리그 복귀 광주FC “첫 단추 잘 꿰겠다”

2023 K리그1 내일 개막
수원 삼성과 원정 첫 경기
“광주만의 축구 펼칠 것”



2023 K리그1이 25일 개막해 8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1년 만에 K리그1으로 복귀하는 광주 FC는 2023시즌 새로운 도전을 향한 첫 발을 수원에서 내딛는다. 광주 선수단은 수원 삼성과의 시즌 첫 경기 승리로 첫 단추를 잘 꿰겠다는 각오다.

광주FC는 25일 오후 4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역대급 경기력을 선보이며 40경기에서 25승 11무 4패, 승점 86으로 K리그2 우승컵을 들어올려 강등한 시즌 만에 K리그1 승격에 성공했다.

또 지난 시즌 환상적인 경기력과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K리그2 역대 최다승(25승)·최다승점(86점), K리그2 역대 최단 기간 우승(-4경기), K리그2 홈 최다연승(10연승) 등 술한 신기록은 물론, 감독상·MVP·영플레이어상·베스트11(6명) 등 9관왕으로 개인 수상까지 휩쓸었다.

광주는 올시즌 더 빠르고 강한 K리그1



광주FC 선수들이 지난 7일 3차 동계전지훈련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체육공원 축구장에서 2023시즌 K리그1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광주 선수단은 공격 축구로 잔류 이상의 성적을 겨냥 강등 1순위라는 평가를 뒤집겠다는 각오다.

이정효 감독은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의 영광을 잊고 광주만의 축구를 펼치는 게 내 목표다. 강한 상대가 있다고 해서 수비만 할 생각은 없다. 차라리 맞불을 놓고 싸워야 저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상대가 누구든 물러서지 않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광주가 강등 1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는 잔류가 목표가 아니다. 그 이상의 성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올시즌 각오를 밝혔다.

광주는 이를 위해 겨우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2023시즌을 준비했다. 이정효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축구’를 완성하기

위해 태국과 제주 동계전지훈련을 통해 고강도 체력훈련은 물론, 포지셔닝, K리그1 대비 세 전술 훈련에 힘을 쏟았다. 또 상대 팀에 따른 쓰리백과 포백을 오가는 수비라인도 견고하게 구축했다.

전력 보강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알바니아 출신 원어 아사니, 브라질 출신 공격수 토마스,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티모 등 3명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 기존 브라질 특급 공격수 산드로와 호주 출신 수비수 아론 등과 함께 강력한 외인 5인방을 구축했다.

또 ‘테크니션’ 측면 공격수 신창무와 ‘하드워커’ 미드필더 이강현, 신인 공격수 정지훈 등 알짜배기 자원이 합류하는 등 공수 전반으로 스쿼드에 날카로움을 더했다.

여기에 지난 시즌 끈끈한 조직력으로 K리그2 우승을 일군 안영규, 엄지성, 김경민, 정호연, 박한빈 등 주축 선수들이 잔류, 최상의 전력을 유지했다.

광주의 시즌 첫 경기 상대는 수원 삼성이다.

지난 시즌 K리그1 10위로 승강 플레이오프(PO)에 내몰려 간신히 1부리그에 잔류한 수원 삼성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의 강호다. 수원 삼성은 올시즌을 앞두고 김보경, 물리치, 아코스티 등을 영입해 공격에 창의성과 무게감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광주와의 통산 전적에서 3승 6무 10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상위스플릿 진입을 향한 첫 단추를 잘 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

다. 주장 안영규는 “다시 돌아온 1부리그 무대, 그리고 강팀과의 맞대결에서 우리가 약세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뚜껑은 열어야 안다. 선수단 모두 지난 시즌 간절히 원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겪은 만큼 동기부여가 남다르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첫 시작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승리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정효 감독도 지난 20일 K리그1 미디어데이에서 “어웨이 첫 경기인 수원 삼성전에서 수원 팬들에게 우리의 축구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가 수원을 잡고 K리그1 복귀전을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글·사진·최동한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FC ‘멀티플레이어’ 김한길 영입

스피드·드리블·패스 능력 뛰어나
중앙·왼쪽 측면 풀백도 소화 가능

프로축구 광주FC가 ‘멀티플레이어’ 미드필더 김한길(27·사진)을 영입, 중원을 보강했다.

광주FC는 23일 FC서울과 전남드래곤즈 등에서 활약한 미드필더 김한길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한길은 178cm·65kg의 날렵한 체격을 갖추고 있으며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이 뛰어난 원어다. 뛰어난 패스 능력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앙 미드필더는 물론, 왼쪽 측면 수비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 평가받는다.

2014년 아주대 재학 시절 이정효 감독의 지도를 받은 김한길은 2017시즌 서울에 입단해, 10경기에 출장하는 등 유망주



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2018년 U-23 대표팀에 발탁돼 소집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전남으로 팀을 옮긴 김한길은 김천 상무에 입대, 지난 시즌 34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냈다.

군 전역 후 광주에 합류하게 된 김한길은 “대학 시절 많은 지도를 해주신 이정효 감독님과 지난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광주에서 재회하게 돼 기쁘다”며 “나도 광주도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 어느 자리든, 어느 곳에서든 팀에 헌신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최동한 기자



美 여자 축구, 쉬빌리브스컵 우승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23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지오디스 파크에서 열린 2023년 쉬빌리브스컵(SheBelieves Cup)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2-0 승리로 우승을 차지한 뒤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쉬빌리브스컵은 미국 여자 대표팀과 초청팀들이 참가해 경기를 치른다. 올해 대회에는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일본이 참가했다.

AP/뉴시스

WBC 보러 도쿄돔 가자... KBO, 응원단 모집

호주전·일본전 각 150명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예선전 응원단을 모집한다.

KBO는 오는 3월9~13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WBC 예선전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의 선전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WBC를 시작으로 아시아 게임, APBC 등 다양한 국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야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야구 대표팀 공식 명칭’을 팬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기획했다.

KBO는 ‘파란 도깨비’로 불리던 과거 대표팀 공식 응원단의 이름을 뒤이을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야구 대표팀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단을 꾸릴 예정이다.

KBO는 WBC 야구 국가대표팀 선전을 지원하는 연예인 및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포함한 응원단을 구성해 3월9일 호주전, 3월10일 일본전에 각 150명의 야구팬과 함께 대표팀을 응원할 계획이다.

이벤트는 KBO 공식 인스타그램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벤트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최동한 기자

전남도체육회 민선 2기 집행부 공식 출범... 안병욱 사무처장 연임

전남도체육회 민선 2기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체육회는 23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제46차 이사회를 열고 송진호 신임 회장 체제의 민선 2기 집행부를 구성했다.

민선 2기 집행부는 부회장 8명, 이사 61명 등 총 70명으로 선임됐다. 집행부는 체육계 27명, 경제계 23, 의료계 1명, 행정계 2명, 교육계 6명, 언론계 6명, 기타 5명으로 구성됐다.

안병욱(사진) 사무처장은 연임됐다. 안 사무처장은 이날 참석한 55명의 이사



들의 만장일치로 임명 동의를 받았다.

안 사무처장은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1월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안 사무처장은 제103회·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역대 최고 성적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모범선수단 수상 등을 이끄는 등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맡은 임무에 충실했다.

안 사무처장은 “송진호 회장님과 함께

뜻을 같이해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민선 2기 전남체육회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전남도민들을 위한 체육회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선임 결과 △시군체육회장 인준결과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결과 등 6건의 보고 사항과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 △각종 위원회 구성(안) 등 2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각종 위원회 구성은 이사들의 동의로 회장에게 위임됐다.

최동한 기자